

“청년은 사회적 약자 아닌 사회 이끌어갈 창조적 자산”

윤현석 1913 송정역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단장

“청년은 도와주고 보살펴야 하는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청년은 사회를 이끌어갈 창조적 자산입니다.”

광주에서 새로운 청년문화를 주도하는 ‘진짜 청년’이 있다. 문화기획사 ㈜컬처네트워크 윤현석(36) 대표다. 그는 ‘1913 송정역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단장’과 ‘청년의 거리 총괄감독’을 맡아 ‘독특 튀는’ 아이디어는 물론, 색다른 아이템으로 광주를 청년도시로 변화시켜가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은 지난 18일 ‘1913 송정역시장’으로 탈바꿈 한 뒤 광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문화와 젊음이 담긴 청년상인 점포들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윤 대표는 “형식적으로 청년상인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여느 시장에서 보기 힘든 청년상인은 사업단이 가장 공을 들인 프로젝트다. 본인이 직접 디자인과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지역성과 청년의 특색을 갖춘 아이템을 선별하는데 집중했다.

지난해 10개 점포 상인을 모집하는데 돌린 지원자 팀만 68여개에 달했다. 경쟁률이 치열

송정역시장 10개 청년상인 점포

컨셉 찾아주고 인테리어 지원

맛·끼·흥 살린 ‘청년의 거리’ 기획

한 만큼 선정에 어려움이 따랐다. 무엇보다 기존 상인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봤다.

서류를 통과한 40여개 팀을 일일이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려 5일이나 걸렸다.

“시장 전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상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바른 성품과 인성을 갖춰야한다고 생각했어요.”

입주한 상가마다 컨셉을 찾아주고 인테리어 공사도 지역의 청년 디자이너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는 또 “직장보다 직업”을 강조했다. 청년 취업난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청년들은 늘 안정되고 ‘있어 보이는’ 직장만을 찾는 것 같다는 “따끔한” 충고도 빼놓지 않았다. 그런 직장보다 자기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청년의 멋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표의 이런 생각은 지난 2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열린 ‘청년의 거리’ 행사

에서 구현됐다.

“청년의 멋”을 주제로 진행된 청년의 거리에 는 청년 본인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패션 아이템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3만원을 주고 금남로지하상가에서 산 물건을 되팔아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긴 청년에게 상품을 주는 등 재미있는 이벤트도 열었다.

“자기가 원래 직업을 만들어가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는 그런 청년들을요. 이들이 가져온 아이템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투자자들을 데려오는 등 네트워크를 형성해주는 것도 빼놓지 않았죠.”

청년의 거리는 오는 5월 ‘청년의 혼’을 주제로 열리며 ‘맛’, ‘끼’, ‘흥’ 등을 테마로 10월까지 매달 개최된다.

㈜컬처네트워크 윤현석 대표는 “수도권에 비해 인프라가 취약해 청년창업과 성공이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다”며 “이제 청년창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광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가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 중심지가 광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신세계 지역인재 희망 장학금 우수학생에 연 1억3000만원 지원

광주신세계는 지난 23일 백화점 커뮤니티룸에서 ‘21기 지역인재 희망장학금 전달식’을 했다. <사진> 올해는 광주지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에서 우수학생을 추천받아 연간 총 1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1995년 개점 초기부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내 관공서 및 장학재단 등과 연계해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장학금 수여 대상자는 소년, 소녀 가장 및 차상위층 계층 자녀, 사회봉사 활동 우수자 등이다.

지난 21년간 지속된 광주신세계 장학 사업은 어려운 기업 영업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하는 지역 인재 2200여 명에게 총 22억여원을 지원했다.

입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광주신세계가 추구하는 사회공헌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눔경영의 적극적 실천을 통한 지역인 모두의 행복한 삶에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공무원 교육’



광주시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3회에 걸쳐 시청 세미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간부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광주시 제공>

광주도시철도공사 중국인 연수생 환영 행사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정선수)는 최근 마로동 본사에서 호남대 국제 교류본부 중국인 연수생을 초청, 종합관제실과 테마역 등을 탐방하는 ‘환영광림(迎光 어서오세요)’ 행사를 펼쳤다. <도시철도공사 제공>

윤석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차장 한국신문협회사상

윤석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차장이 25일 ‘2016년 한국신문협회상’을 수상했다.

윤 차장은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가 제 60회 신문의 날을 맞아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주는 이 상을 받았다. 한국신문협회는 매년 회사와 신문발전에 기여한 신문사



직원들을 선정, 상을 주고 있다. 그는 호남예술제, 3·1절 전국마라톤대회 등 광주시 주관 행사에서 제5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장학금전달과 주방문화개선을 다짐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 장학금 전달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지회장 이병규)는 “최근 목포상그리아비치 호텔에서 제5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장학금전달과 주방문화개선을 다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런 정기총회에서는 광주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도 전달했다. 총회 참석자들은 또 정결한 주방환경 조성

각종 질병예방 및 안전관리, 조리과정의 투명성 확보에 따른 소비자 신뢰 구축, 저렴식단 제공을 통한 주방문화개선 등을 실천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것을 다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kwangju.co.kr



판사들이 학생 법교육·진로상담 해드려요

1법관 1학교 멘토링 체결식

판사 1명이 학교 1곳을 맡아 법교육과 진로상담 등을 하는 ‘1법관 1학교 멘토링 제도’가 효과를 거두며,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68개교에서 올해 75개교로 7개교가 늘었다.

광주지법(법원장 김광태)은 다음달 2일 광주지역 75개 학교(고교 24곳, 중학교 46곳, 특수학교 5곳)와 ‘1법관 1학교 멘토링 체결식 및 간담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1법관 1학교 멘토링’은 지난 2011년 5월 광주지법과 광주시교육청 간 교육기부 협약에 따라 2013년 처음 시행했다. 올해는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를 제외하고 광주지법 법관 모두가 참여해 75개 학교와 멘토링을 체결한다.

판사들은 자신이 멘토 역할을 맡은 학교의 담당 교사와 함께 법원 견학, 진로 강의, 모의 재판 지도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법원과 광주교육청은 지난 2011년 5월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 교육기부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멘토링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및 미래 세대와의 소통과 진로체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현안 전문가 토론회’

전남경영자총협회(회장 이민수)는 전남도 노사민정 협력활성화를 위해 최근 ‘2016년 전라남도 고용노동현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순천 청암대학교 청암홀에서 열린 행사에는 전남지역 노사단체, 기업관계자,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관한 이민수 전남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노사민정의 역량강화 방안을 찾아야 하는 뜻깊은 행사였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 ▲김성환·이광래씨 장남 요섭(화순 제일중) 장길선(전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박이경씨 장녀 지현(화순중)양=30일(토) 오후 1시 구례군 산동면 덕케이 지리산 가족호텔 2층 그랜드볼룸.
- ▲이정·이숙희씨 차남 동욱군 이용기(전 함평군 주민생활지원과장)·함선미씨 장녀 보나양=5월14일(토) 오후 1시 서울시 강남구 대치1동 성당, 피로연=30일(토) 낮 12시~3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빌딩2층 델리하우스 무궁화홀.

중친회

- ▲동래정씨 광주·전남중친회(회장 정진원) 중시조 선산 참배 알현 부윤·문경·정철공=27일(수) 오전 6시 광주시 서구 상록회관 앞 출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장현리 선산, 문의 정영선 011-9615-8567, 010-3609-2523.
- ▲나주임씨 광주화수회(회장 임중선)

2016년도 정기총회=30일(토)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수기동 명성예식장, 문의 총무 010-3620-6618.

향우회

▲재광순천향우회(회장 장호직) 정기총회=26일(화)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삼영예식장 문의 사무국장 최일호 010-6622-2178.

알림

- ▲일자정양림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

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속식보호 062-232-1313.

▲광주장애인권센터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법 검찰청 민원실 2층.

▲광주 북구중독관리센터 여성주간재활프로그램=음주유해대처 및 단주법 강사와 매주 화요일 오후 2~3시 북구중독관리센터 4층 교육실 062-526-3370.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양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모집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

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무등예술종합평생교육원 정부지원 아동·청소년 무료 교육생=광주시 북구 두암동 거주 14~24세까지(수급자·차상

위·저소득 가정 포함) 30일(토) 선착순 마감, 피아노·바이올린·클라리넷·플루트·색소폰·드럼·기타·우쿨렐레·오카리나·태블로 등 문의 010-3606-0230.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정해남 님(남/81세) 子/子婦: 정경애/서영애, 승재/장숙희, 복재/장순임, 건우/최은희 女/婿: 정경숙/황교연 未亡人: 아인임 *발 인: 4월 27일 *장 지: 나주 남평읍선영 *연락처: 227-4381	301호 故김석진 님(남/81세) 子/子婦: 김현삼/장사라, 현준/김석화, 현일/구명희 女/婿: 김현화/사영림 *발 인: 4월 26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2
401호 故이순애 님(여/97세) 子/子婦: 위영환/김효순, 순환/김금순, 흥환/안원자 女/婿: 위귀남/김중구, 덕례/송희, 고영진/송남 未亡人: 정순임 *발 인: 4월 26일 *장 지: 정흥 광산선영 *연락처: 227-4383	402호 故문종식 님(남/84세) 子/子婦: 문종식/장수복, 홍식/권미정 女/婿: 문정숙/신기만, 경란/조세인 未亡人: 정순임 *발 인: 4월 27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14
101호 故김해연 님(여/69세) 子/子婦: 차종식/김희경, 정환/장남경 女/婿: 차정희/김선규 *발 인: 4월 26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000	102호 故양자운 님(여/89세) 子/子婦: 김현중 女/婿: 김금배/김경근, 혜숙/해자, 임용삼/해경, 한봉운/해민, 조영민 未亡人: 김태훈/방문, 세라/세연, 종호/임재정, 종재/안순환 *발 인: 4월 27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5

孝 金오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부음

- ▲강갑임씨 별세 오재선(전남도청 대변인)씨 빈모상=발인 26일(화) 영암장례식장 061-471-4884.
- ▲정해남씨 별세 경채(광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씨 부친상=발인 27일(수) 광주시 동구 학동 금오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010-3725-5330.
- ▲김봉순씨 별세 이종행(세진로지스틱(주))·종행(대웅(주))·복숙·정란·정숙·정미씨 모친상=발인 27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 ▲조연형씨 별세 성윤·연순·애숙·가비씨 부친상=발인 27일(수)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